

10 SEONGNAM
BIZ PLAZA
2019

성남 bиз PLAZA

Your Business Solution Partner
2019 October Vol.207
www.snip.or.kr



성남하이테크밸리
변화를 꿈꾸다



성남산업진흥원
SeongNam Industry Promotion Agency

글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성남하이테크밸리(이하 성남HV)는 한국형 제조업 거점의 과거이자 아시아 지역에 나타날 혁신산업 집적지의 가까운 미래이다. 이곳은 과거 1971년 정부가 '광주대단지 공업단지'로 승인하고 1976년 국내 일반산업단지 1호로 준공되었다. 이후 지난 40여 년간 나타난 이곳의 변화는 성남시의 역사와 그 궤적을 함께 한다. 성남은 과거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출발해 최근 수도권 최고의 지식기반산업 성장지역이자 직장·거주인구가 균형을 이룬 복합경제형 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남HV도 큰 성장을 거두었다. 오늘날 입주기업 약 3,200개, 고용인원 약 43,000명, 누계 생산액은 2.1조 원에 이른다. 서울 인접 도심부에 있는 공장 등록이 가능한 산업집적지 중 최대 규모이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건설붐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실험과 거버넌스 구축이 성남HV에서 진행 중이다. 작년 10월부터 세 달간 성남시·성남산업진흥원과 연구진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총괄기획단> 운영을 통해 산단 재생을 위한 경쟁력강화의 비전과 방향의 밑그림을 그렸다. 서울, 판교, 분당과 가깝지만 산업간 연계가 부족한 측면과 야간 및 주말 공동화의 극복 방안도 논의했다. 성장이 정체된 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최근 선출된 관리공단의 임원진 주도로 다양한 기업 지원과 거버넌스 재구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젊은 근로자나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유입하려면 생활·문화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기에 성남산업진흥원은 국비 확보를 통한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산단의 소프트파워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단으로의 접근성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위례신사선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얼마 전 시작했고 은수미 시장의 결단으로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복정-단대오거리-모란역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전망이다.

성남HV는 우리나라 초기 제조업 거점의 DNA를 담고 있는 '원형'이자 앞으로 전개될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압축적 '미래'이다. 그럼에도 이곳의 산업적 중요성이나 혁신산업지로서의 미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 이야기 발굴과 공간·사람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야기, 초기 산업 역군과 개척자 기업의 역사, 국내 제조업 기반 구축의 과정, 이후 서울의 팽창에 따른 도시기능 분산과 주택난 해소라는 목표로 조성된 수정·중원 본시가지와의 관계, 그리고 성남시 승격 전후로 이루어진 도시화와 이주·숙련근로자 및 스타트업 창업자의 생활 등 숨겨진 이야기가 많다. 잘 발굴하고 정리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진 도시문화 콘텐츠요, 인문사회적 내려티브다. 한국 근대화의 모습을 담고 있던 많은 지역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거나 재개발로 사회문화적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에 반해 성남HV는 지난 40~50년에 걸쳐 지속해서 숙련노동의 집약과 산업특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주문·생산·판매·재투자자의 전 공정을 포괄하는 산업생태계가 진화를 거듭하며 도시공간 곳곳에 새겨져 있다.

아직 구로·가산이나 판교만큼은 아니지만 그 우수한 입지 특성으로 타 용도나 개발사업과의 공간 경쟁이 심했음에도 성남HV에는 각종 전통산업(제품 제조, 식품 등)과 첨단 IT 산업, 메디바이오와 각종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폭넓은 산업 스펙트럼이 혼재되어 있다. 주간에는 인접한 광주·용인·남양주·화성시 등에서 약 22,000명의 근로자가 유입하며 여기에 지역 내 상주인구까지 더하면 약 40~50,000명이 이곳을 생활·경제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다. 앞으로 여기서 진행될 변화는 국내 다른 도시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과거 정주형 도시에서 경제형·여가형 혹은 제3유형의 도시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다른 도시에 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HV를 위한 몇 가지 제안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성남HV는 강력한 도심 제조업 기반 위에 4차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자라날 국내 최고의 테스트베드이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폭넓은 사회적 자본이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주문 후 생산



에 익숙한 숙련노동자와 첨단기기의 제조 공정을 꿰뚫고 있는 풍부한 인적 자본, 브랜드 파워를 축적한 식품업과 최근 급성장 중인 연구개발업 및 창작·예술·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는 종다양성, 각종 제품의 생산지이자 지식·서비스의 소비지인 배후도시 성남이 소중한 자원이다. 앞으로 메이커스페이스와 리빙랩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형 소상공인과 생산 시설 분산에 따른 무공정 기술지식창업자, 판교 및 분당 내 금융·의료·게임산업과 연계하려는 기업에 성남HV가 더욱 매력적이게끔 제도와 공간을 다듬어야 한다. 미래의 성장 산업은 기존 산업분류체계나 권장업종의 틀을 뛰어넘을 것이다.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화 시대 눈높이나 규제 중심의 관리방식에 머물러 있다가는 4차산업혁명과 함께 올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 수도 있다.

둘째,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단순히 도시민이 요구하는 재화를 공공의 지원정책 하에 생산·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미래형 산업단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창출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구현할 수 있게끔 기존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사회에 기회를 창출하는 능동적 공간이다. 성남HV도 이러한 역할 변화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기존 특화 산업만을 위한 인력 고용을 넘어서, 광범위한 고용 기회 창출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 교육·경험의 장 마련을 통한 성남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행정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협력이 아니다. 도시와 산업이 상호작용을 통해 같이 성장함이 진정한 협력적 관계이다. 행정과 관리기관, 민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인 대목이다. 도움이 될만한 사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플레이스메이드(PlaceMade)'가 있다. 플레이스메이드는 제조업 공간 개발에 특화된 비영리 디벨로퍼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워낙 지가와 임대료, 물가가 높아 제조업을 위한 신규 공간 확보와 비숙련 노동자의 제조업 진출이 무척 어렵다. 플레이스메이드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숙련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포괄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게끔 한다는 미션 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작년 이 회사가 조성한 100/150 Hooper 제조업 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을 지역 내 저소득층으로 고용했다. 대신 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낮추었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다양한 세금 인하 혜택도 제공했다. 공공이 직접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산업생태계와 개발사업이 안착할 도시여건을 조성하는데 공공과 기업이 협력한 모델이다. 해당 공간은 제조업에 특화되었지만, 매력적인 문화상업 복합 기능과 공용 회의실도 내부에 갖추었으며 비숙련 근로자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플레이스메이드에 이런 공간의 개발·운영 실적이 쌓일수록 앞으로 여러 창조적 제조업 공간 개발과 금융, 지역 고용, 저소득층 복지를 접목하는 노하우도 축적될 것이고 저렴한 공공기금의 확보도 쉬워질 것이다. 제조업 공간의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 비영리 기업의 경험 축적이 선순환을 그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셋째, 그렇다고 아직 민간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 실적이 척박한 우리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다. 성남에서 잘 작동할만한 새로운 모델의 고안이 필요하다. 적어도 성남시의 행정이 외부 전문가 및 시민과 손을 잡고 집중하고 있는 부문이 있다. 성남시와 LH공사 소유지에 대한 입체적 활용,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공유플랫폼 운영,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와 재투자, 불허업종과 매각 예정지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교통편의 제공, 젊은 인재를 위한 문화·기술교육과 사회적 네트워킹 촉진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옮기며 나아가 여러 사업 중 우선순위를 매겨 선도적 사업을 실행하는 일도 중요하다. 좋은 도시는 좋은 도시공간과 소프트파워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구현된다. 어떻게 해야 그 효과가 성남시의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지 애정어린 관찰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